

중국, 비료 메이저 Potash 인수 추진

지분 15% 인수금액 83억달러 ... 광산기업 BHP 움직임 봉쇄방안 논의

중국이 캐나다의 대형 비료 생산기업 Potash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중국 당국은 Sinochem을 비롯한 관련 국유기업에 오스트레일리아 광산기업 BHP의 캐나다 비료기업 Potash 인수를 봉쇄하는 방안을 국제 투자은행들과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Sinochem은 씨티그룹과 HSBC를 포함한 일부 투자은행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월스트리트저널)도 Sinochem이 Potash 인수와 관련해 HSBC를 자문사로 고용하고 있다고 9월2일 보도한 바 있다.

소식통들은 Sinochem이 Potash 인수를 위해 3000억달러의 자금을 운용하는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Sinochem은 BHP의 인수를 저지할 수 있는 만큼의 지분만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15%의 지분을 20%의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하려면 83억달러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BHP는 390억달러에 Potash를 인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Sinochem은 Potash 인수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고 있으며 중국투자공사도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07>